

[ TV ]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V schedule table for KBS1, KBS2, MBC, KBC/SBS channels.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생방송 세상의 아침, 2008 베이징 올림픽,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Radio 산책

Radio schedule table for TBN, CBS, PBC, and 광주불교방송 channels. Lists various music and news programs.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V schedule table for KBS1, KBS2, MBC, KBC/SBS channels. Features programs like KBS 뉴스, 생방송 세상의 아침, 2008 베이징 올림픽,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Radio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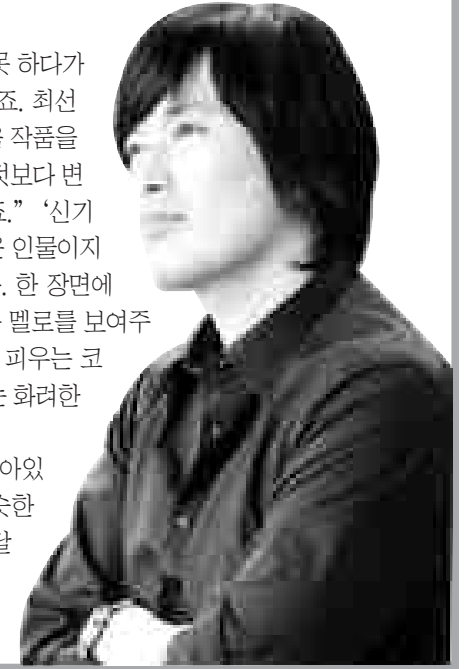
Radio schedule table for TBN, CBS, PBC, and 광주불교방송 channels. Lists various music and news programs.

정재영 “안주 하는 것 보다 변신이 낫겠죠”

신작 ‘신기전’에서 ‘조선판 로빈훤드’ 설주역 맡아

변신의 연속이다. 지난해 가을 '바르게 살자'에서 고지식하고 순박한 경찰관이었던 배우 정재영은 올 봄 '강철중:공공의 적' 1~1'에서 양의 탈을 쓴 강철중이 되더니 이제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의자를 든 '조선판 로빈훤드'가 돼 돌아왔다. 전에도 마찬가지로. 정재영(사진)은 판타지 '앨릭스 투 동막골', '거룩한 계보', '아는 여자', '피도 눈물도 없이', '킬러들의 수다' 등 각종 장르에서 다양한 배역을 섭렵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의 옷들이지만 그 것을 걸친 캐릭터는 결국 정재영만 만들 수 있는 얼굴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얼굴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유내강'일 것이다. "예전에 맡았던 역할들은 주로 어수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런 빈틈이 줄어들며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바르게 살자'까지만 해도 어수룩한 점이 많았지만 '강철중'부터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것과 예전 것을 비교하면 아주 많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재영은 변화가 많은 배역을 선택하기에 앞서 많은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말도 못하게 걱정되죠. 생소한 역할을 잘못 하다가 욱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게 나와야 그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안주하는 것보다 변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거죠." '신기전'의 상단 우두머리 설주는 선하고 정의로운 인물이지만 이제까지의 배역들과는 또 다른 캐릭터다. 한 장면에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여인을 뜨겁게 안는 멜로를 보여주다가 다음에는 현대극이나 어울릴 법한 판전 피우는 코미디를 선보이더니 뒤돌아서서 겹을 휘두르는 화려한 액션을 자랑한다. "이번에는 다시 어수룩함과 소심함이 남아있는 역할이에요. 예전에 했던 '무자'들과 비슷한 억이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화가 달라지면 배역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연협뉴스



Advertisement for EBS channels including CMB, KCTV, and EBS. Lists various sport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필요했던 여자에게 다가온 가발

명화극장 '가발' (KBS1·25일 새벽 0시 55분)

어두운 병실, 수현은 오싹한 기운에 깔려 침대 밑을 바라본다. 그곳엔 더 이상 가발 없었. 수현을 위해 언니 지현이 선물한 가발을 쓰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꾸만 유혹한다. 가발을 쓰고 거울에 비친 모습은 바라보는 수현. 어느 순간 가발이 벗겨진 수현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생기 넘치는 매력적인 여자의 모습이 되어간다. 가발을 쓰고 나서부터 앞세모가 줄어들고 눈에 띄게 생기를 찾아가는 수현. 지현은 그런 수현이 엔지 불안하다. 수현이 가발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계속되는 수현의 알 수 없는 말들. "내가 그렇게 무시워?" 지현은 날이 갈수록 심득하게 변해가는 동생에게 안타까움과 묘한 질투심을 느끼고 심지어 두려움마저 생기기 시작한다. 달리는 차 안에서, 이제는 활기찬 여자로 변해 있는 수현이 지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넌다. 변한 동생을 신기해하는 듯 바라보는 순간, 수현이 소스라치게 놀란다. "망금 그 버스 말이야!" 수현의 눈에 비치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여고생 세 명의 뒷모습. 허리가 꺾인 채 머리카락에 조여지는 여고생이 수현을 노려보고 수현은 숨이 턱턱 차오른다. 하지만 언니 지현의 눈에는 그저 광범한 버스일 뿐이다. 가발로 인해 변해가는 수현, 사랑스러운 동생이 공포가 되어 버린 지현. 점점 두 자매에게 비밀을 간직한 가발의 주자가 다가온다.



Advertisement for EBS channels including CMB, KCTV, and EBS. Lists various news, sports, and entertainment programs.